朝鮮日報
第二夕刊
八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大元帥陛下親臨下
陸軍始觀兵式擧行

【東京電話同盟】興亞의新春을 祝하는 陸軍始觀兵式은 紀元二千六百年 新春에 더한層 莊嚴하게 聖戰下에 세번째 擧行되엇다 大元帥陛下의 親臨을 맞으려 八日 午前 九時三十分부터 代代木原頭에서 擧行되어 皇軍의 威容을 자랑하엿다 이날 大元帥陛下께옵서는 陸軍觀兵式 御服에 大勳位副章及 功一級金鵄勳章을 御佩用하옵시고 蓮沼侍從武官長 御陪乘 畑陸相 以下를 御從하옵시고 午前九時三十五分 宮城을 御出門 同九時五十七分 式場에 臨御 御先着의 秩父宮殿下 高松宮 三笠宮殿下를 비롯하야 各皇族殿下의 奉迎을 받으옵시고 閱兵을 開始하옵셧다 時二十五分 地上部隊의 分列式에 이어 午前十一時二十五分 盛儀를 마치옵시고 午前十一時三十分 宮城에 還幸하옵셧다

新政權樹立方針說明次
十日、五黨首會議開催
不安한政局打開에注力乎

【東京電話同盟】支那中央政權樹立에 對한 我基本方針은 八日의臨時閣議에서 正式으로 決定을보게되어 國內手續을 完了하게 되엇스므로 政府는 右臨時閣議開會前 臨時參議會를열고 右基本方針을 說明、諒解를求하고 이어서 五黨首에도 說明할方針인데 이로써 新政權問題에 關한 事務的措置를 終了하게되므로 阿部首相은 三日이 求하는 各派有志代議士의 反政府運動을 關係하는局面 打開에 注力하여 刻下의政情不安을 一掃하려고 힘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데 閣內에 近近 行할 五黨首會合을 機會로 政黨工作에 對하여 어떠한 端緖를 얻도록 自進利用하여야한다는 積極論이 首相에게 進言되고잇는 側도잇서 首相도 이點에 對하여 充分히 考慮하고잇는 模樣이데 政黨方面의 空氣에 비추어 愼重한 考究를 要하므로 이에 關하여 首相은 七日 小原內相과의 會見에서 意見交換을하고 또는 遠藤書記官長을 吉田海相邸에 派遣하여 海相의 意向을 聽取한 模樣으로 五黨首의 會合은 如何間 新政權樹立에 對한 基本方針說明이라는 名目下에 十日開催되게되엇는데 이機會가 政府가 期待하고잇는 바와가치 局面好轉의 好機가 될지 어떨지 이點으로보아 五黨首會合의 推移는 매우 注目된다

臨時內閣參議會

【東京電話同盟】八日의 臨時內閣參議會는 正午 首相官邸에서 開催되엇는데 政府側으로부터 阿部首相、野村外相、淸水厚相 參議側으로부터 久原、鄕兩參議를 除한外 全參議出席、劈頭 阿部首相으로부터 支那事變處理의 新段階를 劃할 支那新中央政權樹立에 伴한 帝國의 基本要綱은 지난六日興亞院會議에서 決定되엇스므로 八日午後二時부터 開催되는 臨時閣議에서 嚴議決定하기로 되엇다고 述하여 基本綱項의 內容을 詳細히 說明、諒解를 求하고 午後을 함께한後 參議만 남어서 懇談을 거듭하다가 散會하엿다

四銀聯辦事總處 金融經濟委員會設立

【上海八日發同盟】重慶政府는 國內金融統制經濟統轄의 目的으로 中… 되어 金融에 敗走의 氣運이 漸次 濃厚하다

特別緊急會議召集
新政權樹立要綱決定報에 唐慌

重慶政府

【香港七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新中央政權樹立에 關한 基本要綱은 六日의 興亞院會議에서 正式承認을 보게되어 日本政府의 新政權成立에 關한 基本方針이 더욱 確固하게 되엇다는 所聞은 俄然 重慶政界에 大衝擊을 주어 新政權의 樹立을 極力妨害하는 同時에 新政權樹立은 流產될지도 모른다는 夢想은 지금은 完全히 水泡에 돌아가게되어 重慶政府는 지금完全히 恐慌의 色을 掩蔽할수업시 唐慌하고 잇다 重慶政府領袖는 兩三日前부터 이에 對應하려고 重要協議를 거듭하고잇섯는데 重慶政府는 다시 一般的危機에 當面하고잇는 國內情勢及 對外關係에 對하여 新政權樹立이 齎來하는 深刻한 影響에 對處하기 爲하여 國民黨中央黨部名義로써 重慶에 中央領袖의 特別緊急會議를 招集하기로 決定하엿다

南寧附近廣西軍 全然戰意를喪失

【廣東七日發同盟】南寧을 失하여 欽州方面으로부터의 軍需補給施設이 潰滅된 廣西軍은 戰車隊를 增援하여 이를 先頭로 賓陽南寧 道路上의 崑崙關、九塘附近의 隘路에 出擊하여 왓스나 我軍은 巧妙히 地形을 利用하여 敵을 激擊徹底的 打擊을 주어 敵을 敗走시켜 五日까지에 遺棄屍體 擄獲시킨 敵戰車數는 約百輛에 達하엿다 蔣介石의 廣西軍은 往年부터의 驗을 誇하던 所謂 精銳라는 所民命軍에서 又復大部隊를 일케되어 지금完全히 士氣가 阻喪되엇다

滿蘇國境確定第一回치타會談 (上은 치타사라토第全景、中은 會議場의 日滿代表 下는 蘇聯側代表)

陸相、臨時閣議前에
寺內、杉山兩大將과會談

【東京電話同盟】衆議院各派有志로 時局의 動向이 微妙한 이때에 反政府的運動展開를 中心으로 新支那政權樹立에 對한 帝國의 基本方針은 八日臨時閣議에서 嚴議決定을 보게되어 그間의 陸相態度는 各方面의 視聽을 모으고잇던바 八日午前十一時五十分 畑陸相은 陸軍始觀兵式 終了後 陸相官邸로 軍事參議官 寺內壽一、杉山元兩大將의 來訪을 求하여 二時間餘동안 重要會談을 行한後 臨時閣議에 臨하엿는데 事의 沈默을 지키고 愼重事態의 推移를 注視하고잇던 畑陸相이 兩大將과 會談을 한것은 자못 注目된다 (寫眞은 上으로부터 畑陸相과 寺內、杉山兩大將)

【上海八日發同盟】重慶政府는 國民黨의 歐米派의 反蘇 反共運動에 對하여 非常한 憤激을품고잇서 近近機 … 宋哲元軍의 約二萬六千이五日再次信陽 北方三十키로 長台關에서는 五日以來 我佐野 寺平 鑛浦 松崎 各部隊가 陸水左岸에서 一部敗殘兵이 細細이 蠢動하고잇는外에는 極히 平穩하다

國共對立激化!
中共黨、孔祥熙를 彈劾

【香港八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中國共產黨中央本部는 一月三日附延安에서 蔣介石에 對하여 蔣介石의 中國共產黨 中央政治局緊急會議의 決定에 依하여 四項의 要求를 提出하엿는데 다시 昨七日附로써 重慶當局에 對하여 行政委員副院長兼 財政部長 孔祥熙를 痛烈히 攻擊한 彈劾電報를 發하엿다 孔祥熙의 再三에 亘한 財政上 失敗及 金融持續上의 不正事實을 指摘하고 이를 痛斥하고잇는데 共側의 今次 孔祥熙攻擊은 今年初頭에 開催된 國防最高委員會에서 孔祥熙가 通貨制度統一의 主張으로 陝西、甘肅、寧夏各省에서의 中共側 發券銀行의 發行權을 取消하라는 提案을 한것이 中共側의 憤激을 산 結果라고 보인다 그리고 中國共產黨은 重慶政府內에서의 歐米派의 反蘇 反共運動에 對하여 非常한 憤激을품고잇서 近近機會를보아 外交部長王寵惠에 對하여도 攻擊을 하려고 하고잇는 模樣으로 이때문에 國共兩派의 調停에 出馬하려고 急遽歐米旅行으로부터 歸國한 孫科도 지금 兩黨對立의 激化에는 完全히 傍觀하고잇는 形勢로 內外情勢의 逼迫에 蔣介石도 苦境에 이르게되엇다한다 一方 中國、交通、中國農民의 四銀行聯合辦事總處는 戰時金融의 中國農民銀行의 理事會를 强化하기 爲하여 戰時金融經濟委員會를 設置하여 戰時金融經濟의 强行을 擔當시키기로 되고 蔣介石自身이 辦事總處主席이 되어 國內金融經濟의 統制를 企圖하고 … 財界의 反感을 買하고잇다 한다

外長城線一帶 作義軍을殲滅

【厚和七日發】外長城線一帶의 攪亂을 企圖하고 侵入하여온 傅作義의 殘敵軍을 徹底的으로 反擊하여 兵七百에게 殲滅的打擊을 주어 敵五百을 殲滅、芥子永、宮崎兩部隊는 四日부터 五日에 걸처 厚和北方 方面 寒北方五十五키로 破陀溝附近에서 河野、岡村各部隊는 四日早曉左翼 敗殘兵을 追擊하여 進攻한 各地에 分散逃走하엿다 그리고 黃河對岸에 擊退 黃河附近攻擊 中村各部隊는 崇陽西南方으로 軍事를 주고 또는 岡村 宮木 山本 各部隊에 對하여 …

南昌附近靜穩化
孫連仲、宋哲元軍도掃蕩

【漢口七日發同盟】新牆河方面의 敵은 我第十九師에게 潰滅的打擊을 받고 我軍은 季攻勢에 對하여 殘敵을 掃蕩中이다 我軍은 各處에서 孫連仲軍三個師를 猛攻 井出 南山各部隊는 五日午後 京漢線信陽北方에 出擊한 孫連仲軍은 元來北方으로 向하여 潰走中 南昌附近地區는 二千二百二十七의 死體를 遺棄하고 潰走한以來 南昌東北方 山地帶에서 一部敗殘兵이 細細이 蠢動하고잇는外에는 極히 平穩하다

時事解說
英內閣의 改組

【明日은 前號續】英首相은 一九三七年五月 組閣以來 歐洲政界의 混亂을 反映하여 昨年二月 內閣을 改組하엿든바 昨年九月三日 對獨開戰과 同時에 戰時體制를 强化하기 爲하여 又復內閣改造를 斷行한以來 … 外相 … 陸相 … 三相의 … 實로 에 國際政局에 對한 바와가치 大體로 …

八面鋒

◇ 이는 英國內閣 改造의 結果 陸相 스탄레는 對獨包圍論者、티스 情報相은 反파씨스트라고。

◇ 이든、처칠等 强硬派들이 가든 內閣에 잇는것을 생각하면 容易히 對獨平和가 오지 안을뜻。

◇ 歐洲에 平和가 안오고、極東에 事變이 繼續되면 利益을 보는 것은 米蘇伊三國。

◇ 이들은 장사로 利를남기고 하면이 疲弊하면 强한 者될 도와 媾和를 시키려는 腹臟 이겟지?

◇ 十日은 首相의 五黨首會見 日이므로 그날을 重視。

◇ 有志代議士의 意見에 黨首들이 同意하는가가 問題의 焦點。

◇ 首相이 일부러 協調하자는 氣色을 보이고、改變을 자주 할 時機가 아닌것을 생각하면 反政府的이 아닐지나、

◇ 政見의 不徹底、二百七十名 代議士들이 反政府行動을 보면 따라갈수도 하엿。

◇ 政府의 觀念은 아직도 不絕、二十世紀의 恥辱이로군。

人事·集會

▲坂井省吾氏(京城地方法院檢事) 新任人事次八日來社
▲杉本覺一氏(京城地方法院檢事) 兼京城保護觀察所輔導官 同上
▲田平勝一氏(京城地方法院檢事) 人事次八日來社
▲山田新十郞氏(鐵道局長) 九日午後아까쯔끼로 東京으로부터歸任豫定
▲山地珊之氏(總督府理財課長) 稅金部賣金을 交涉하기 爲하여 二週間豫定으로 四日午後渡東
▲伊藤泰吉氏(總督府稅務課長) 歸鄕中十四日歸任豫定
▲池田幸德氏(度量衡所長) 新任人事次來社

英第三艦沈沒

【倫敦七日發同盟】英國海軍省은 六日 스코트렌드 東海岸에서 機雷에 觸하여 大破 … 又英掃海艇一隻이 北海에서 擊沈되엇다고 … 五日夜 시블뤼라트 附近에서 佛汽船 … 沈沒하엿다

伊匈會談終了
共同콤뮤니케發表

【베네치아七日發同盟】챠노、챠키伊匈兩國外相은 前日에 繼續하여 七日午前 第二次會談을 하엿는데 이로써 本會談을 終了하고 會談後 如左히 共同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伊、匈兩國外相은 六七兩日에 걸처 베네치아에 會同하여 歐洲現下情勢에 對하여 隔意업는 意見交換을하엿다 이에兩國外相은 兩國間友好와 緊密한提携의 基礎가 鞏固且健全하고 또兩國間에 完全한意見의一致를 보게된것을 滿足하게 생각하여 强調하는바이다

匈牙利政府 日匈文化協定提唱

【伯林七日發同盟】匈牙利政府는 日本、匈牙利文化協定에 對하여 非常한 熱意를보여 여러가지의 文化提携를 考慮하고잇는데 今番 그始初로 日本、匈牙利兩國의 學者를 動員시켜 兩國民族의 起源에 對하여 調査硏究를 하기로 되엇다 匈牙利人은 日本人과가치 東洋人의 血統을 享受하고잇슴을 民族의 자랑으로 알고잇는데 匈牙利政府는 新協定의 成立을 機會로 民族學 言語學等의 學術的硏究에 依하여 兩國人의民族的近似性을 實證하여 日本匈牙利提携를 一層促進하기 爲하여 이를 提唱한것이라고한다

獨土通商交涉 近近開始豫定

【이스탐불七日發同盟】土耳其는 大戰勃發直後年産二十萬噸에 達하는 크롬鑛을 全部英、佛、米三國에 賣却할 契約을 右三國과의 사이에 締結하엿기때문에 獨逸에 對한 크롬鑛輸出에 依하여 獨土通商協定을 締結하려고 希望하는 側도 만흠으로 獨土通商交涉은 近近再開될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土通商交涉은 마친내 中絕되어 잇섯는데 그結果 獨逸製品에 依賴하고잇던 土耳其日常必需品은 輸入이 杜絕되어 土耳其國內의 物價는 極度로 騰貴를 招來하게되엇다 이가튼 實狀에 비추어 最近土耳其政府部內에도 對獨譲步를 考慮하게까지되어 此際獨逸에 對한 …

和蘭首相訪伊
歐洲和平調停이目的?

【암스테르담七日發同盟】七日附 富地發行스타다트紙는 目下巴里를訪問中인 和蘭首相코라인博士는 다시 羅馬에向할 豫定이라는데 암스테르담政界에서는 코라인博士의 羅馬行의 目的은 歐洲和平調停을 爲하여 伊太利政府의意向을 打診하려는데잇다고하여 매우重視하고잇다

支那派遣軍 陸軍始觀兵式

【南京八日發同盟】西尾支那派遣軍總司令官陸軍大將以下 빗나는 二千六百年陸軍始觀兵式은 初春의 陽光이 빗나는 南京練兵場에서 八日午前十時半부터 擧行되엇다 ○○部隊長의 號令一下 一絲不亂하는 大分列式이 擧行되어 裝甲車와 砂塵을 올리고 驀進하는 精銳 機械化部隊를 비롯하여 各部隊는 皇軍에 威武를 빗내엿다 이에 하고 陸鷲는 式場上空을 엄게空中 分列式을 行하여 正午지나서 意義기픈 觀兵式을 無事終了하엿다

天津의人口激增

【天津七日發同盟】事變以來 華北의 治安이 確立됨에따라 商市天津의 人口는 急激한 增加를 보이고잇다 昨年未曾有의 大洪水때문에 在留邦人中 鮮滿各地에 避難하엿던 者도 水害復舊後 續續歸還하여 天津特別市公署警察局의 調査에 依하면 最近 一個月間의 人口增加는 四千五百名에 達하고잇서 天津의 總人口는 百四十六萬八千二百四十五名 이다 同公署調査 昨十二月二十日現在 人口統計는 如左하다

	戶數	人口	男	女
日本租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租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租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租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華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特別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肺炎·感冒·濕布劑
アンチフラミン
ANTIPHLAMINE
지금流行하는感冒。肺炎에本劑를 胸部에바르면 優秀한消炎鎭痛作用으로써 卓効를보게되고 其他ロイマチス。神經痛。腰痛。婦女子의月經痛等各種炎症과疼痛性疾患에도特効가잇다。
包裝 20瓦 60瓦 (家庭用) 500瓦 (病院用)
適應症
肺炎·肋膜炎·로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支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運動前後等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羅府·台北·天津

效果 本位

UZ-95
男性强力 ホルモン劑
オルキモン
オルキモン은 性機能을旺盛케하는 雄性動物의睾丸實質과 身體의 全器管을補强하는 諸有効成分을 配合精製한것으로서 精力을 增進시킴은勿論 … 에活力을賦與하야 精神과肉體의 活動力을旺盛케하는特殊한 效果가잇다。
適應症
生殖機能障碍·早漏·精力減退·神經衰弱·老衰現象·生殖器發育不全等
包裝 (內服) 40カプセル 100カプセル
ORCHIMON

堅志醫院
一內科一般
特呼吸器
消化器
一X光線科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朴鍾璿
京城府堅志町四九
電光三一三五番

詩學
第五輯
定價 三十錢 送料三錢
詩友 通信 頂針 詩者 欄 (…)
朝鮮唯一의詩誌
內容一般
詩壇展望 …… 尹崑崗
詩 = 辛夕汀 劉昌宣 閔內史 尹崑崗 柳致環 李燦 …
詩友通信 …… 陶淵明論
詩壇匿名批評 …… 文壇諸氏
詩 = 崔方郁 林學洙 …
京城府鍾路二ノ六七 振替京城五〇九五
詩學社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 惡性腫毒과 骨髓에기피든어렵고、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六枚入 五〇錢 十二枚入 九五錢
製造本舖 京城府長橋町八 慈祥局
振替口座京城一三一番 各藥房에도販賣합

당신의靑春과健康에
ズーリプ 즈-리푸
月毒의生理에
여러분月經時의걱정거리는解消됩니다!
京城濟衆院 孔壽貞
(前略) 우리들女性에게 週期的으로오는月經時의 거북거리를 女性에게있어서는 重大한일로생각합니다 文化의進步에따라 그것이時體에 潮流에 맞지안는 것이잇슴니다 … 「즈-리푸」 …
一手販賣店 朝鮮一手(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北鮮代理店 (株式會社) 清津新井藥房

府當局、經警과握手하여 惡德家主徹底掃蕩
全府民의八割五分에該當하는借家人을生活安定爲해
不當貫率의調査開始

집人세나방人세에 대해서는지난시월에 발포된 가격등통제령에 의하여서 재정변이상일 실시월십현재이상은 절대로 올리지못하도록 되어잇슴에도불구하고 집임는사람들의 약점을 틈타서 판청물래 집人세를올리는악덕가주가 적지 아니하므로 경성부사회과에서는 법의 권위를 위해서뿐이 아니라 전부민의 팔할오푼을 점령하고 잇는 차가대중(借家大衆)의 생활안정상이려한 경향을 중대시하고 신년벽두를기하여서 경제경찰과 긴밀히 연락을취하여 악덕가주에대한 근본적단속을 개시하기로되엇다 그래서 부사회과에서는 계원총동원으로 부내세入집전반에걸치 집人세조사에 착수하엿는데 이편 도이것과병행해서 부내에잇는대가인(貸家人)전부를이달중순께부터 지역별로 부청에소집하여 법령의취지 철저를도모하는동시에 대가업자들의 자속자기를 엄중경고하기로되엇다

海底電信故障 修理工事遲延

지난해 십이월이십팔일오후네시삼십분이래 불통이된 조선해협의 해저전신은 그후즉시장기(長崎)로부터 수리선 동양환(東洋丸)이 현장에 급행하엿스나 풍랑이 넘우심하여 수리공사에 착수할수업서서 사입도로 장기에 돌아와서 날씨가 가라안기만기다리고잇는중이다 대륙파의 통신의 중대성대비추어만난을 무릅쓰고래도 시각을다투어수리할필요가 절실히잇서 금명간 다시현지로 떠나기로될터이다 전후를 종합해본 결과 고장의일어킨 장소도 대략판명되 해저습으로 수리는 비교적단시일에될듯하여 잘만가면 금후일주일이내로써 복구될는지도알수업다고한다

大工場과重要建物 火災、積極防止警告
京畿道警察部長이京城、仁川各署에示達

작년십이월일일의 방화일(防火日)을기회로 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화재에대한 민중의자각과 협력을 요망한바잇섯는데 그후 경성부내에서는 삼십수건 칠십만여원의 화재손해가 발생하엿고 그손해의 대부분은 공장등의 화재로 부주의에의한 국가재물의 손실이므로 유일경기도경찰부장으로부터 부내 각서와 인천(仁川)경찰서장에게『오근실을을기하여 대공장 기타중요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화재를방지하도록 경고를발하라』고 시달하엿다

"金剛山大火被害 이러케僅少하다"
鐵道局員들의現場調査報告

철도국에서는 외금강에 산人불이나는 직시로 국원오륙명을 현장으로 보내어서 불이완전히 지식될때까지 화재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엿다 그래서 그결과를 팔일 오전에 철도기자단에게 정식으로 발표하고 천하의 명승금강산은 안심하고 금강산구경하러가달라고 외치고잇다 그조사발표한 바를보면대개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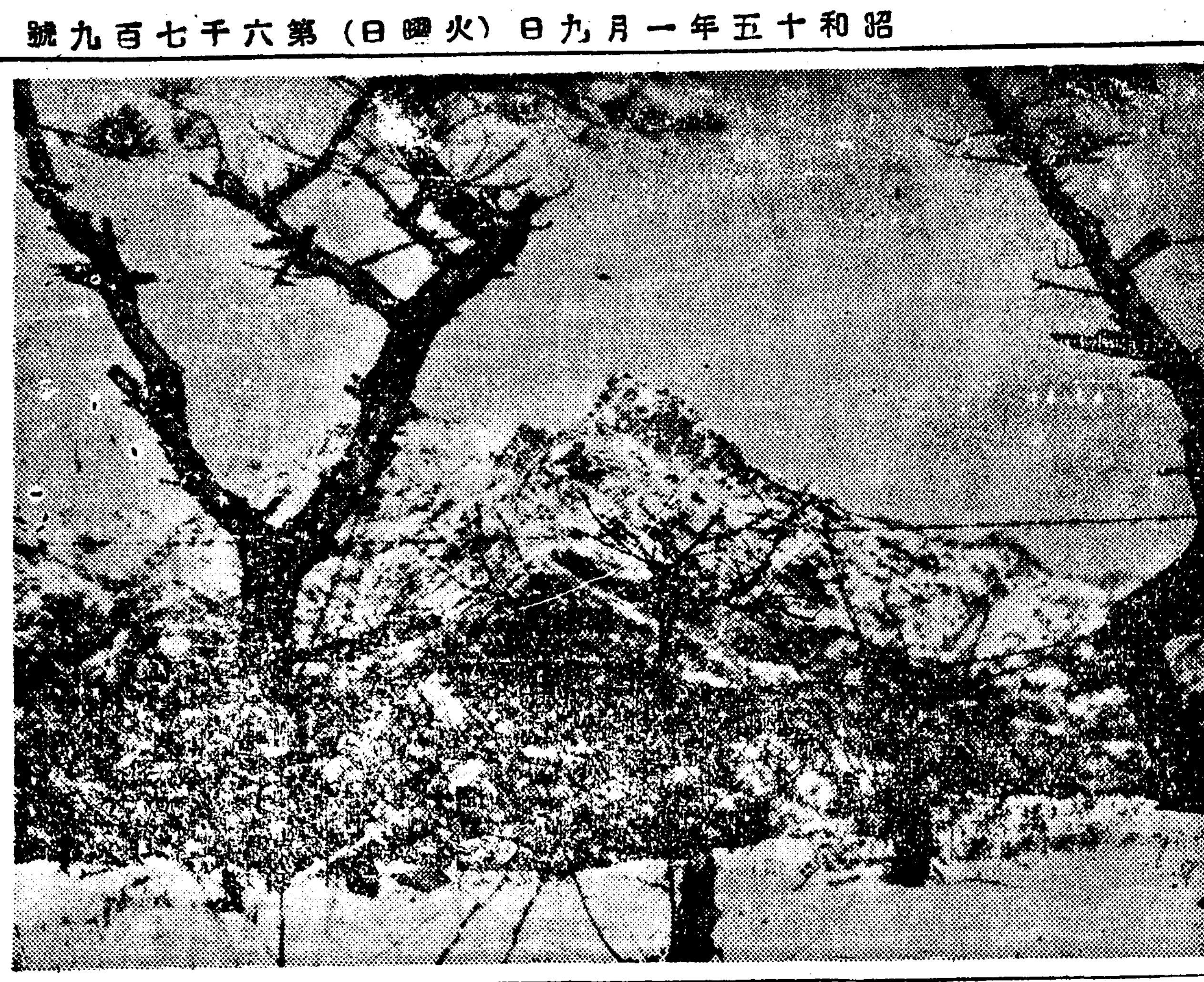
▲溫井里…온정리는 아무 피해가업스며 자동차는 평소대로 다니고잇다 외금강「스키」장도 무사하다

▲九龍淵 코ー스…구룡연방공「코ー스」의 잡복및신선대들이 말라죽을것이 상당히잇슬 모양이다 불은『영지대』부근으로부터 산록대기로퍼저서 금강문(金剛門)차점을 피하여다시 금강문으로부터 약이백미돌가량 옥녀봉(玉女峰)산기슭으로 건너부터서 꺼젓다 산안에잇는 각 차점은 전연 피해가 업고 신계사도 무사하다

▲萬物相코ー스…만물상「코ー스」는 온정리로부터 육화암(六花岩)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자동차길을 따라 양바닥에만 불이퍼저부터서 좌우양편이 모두 탓스나 피해는 극히적다 불은 문주봉(文殊峰)서남산 기슭에서 지식되엇다 육화암으로부터 아프로는 전연 피해가 업고 산안 차점은 전부무사하다

▲新金剛코ー스…동석동「코ー스」에는 신계사 동석동사이는 피해가업고 집선봉(集仙峰)산기슭이 동석으로부터 약칠백미돌근처까지 조금탓슬뿐이다 세존봉(世尊峰)과 채하봉(彩霞峰)은 일기가 조치못하여서 조사할수 업섯스나 단형적인요고주위를 살펴보아서피해가 업는듯하다 발연소(鉢淵沼)근처에는나무가 말라죽을것이 상당히 잇슬모양이다

▲水晶峰코ー스…수정봉이나발봉(鉢峰)에는 상당히 피해가잇다 수정봉 발봉사이의 가름길근처의 숲은 상당히말라죽을것이 잇슬모양이다 그바게 비로봉과 내금강과신금강은 모다피해가업다



머리에 힌눈을이고……(오늘아침북한산에서)

普成中學校職員에 家族手當을支給
廿歲以下同居子侄에주기로……高啓學院快擧
朝鮮에서嚆矢·各方面의喝采

부내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의 경영모체인 재단법인 고계학원(高啓學院)에서는 지난칠일오후두시부터 보성중학교에서 이사회를 열고 물가가 비싼이때에생활안정을 엇게하기위하여 보성중학교직원에게 가족수당(家族手當)을 주기로 결정하엿다 즉동교교직원과 하께거주하는 스무살이하의 가족아사람에게 대하여 한달에오원씩을 주기로한것이다 조선안에서 가족수당을주기로한것은 이고계학원 경영의 보성중학이 처음이다 근래물까가대단히 오르면서 봉급생활하는사람들의 생활은 모두가 전보다 몇곱 괴롭게된중에도일반영리사업회사도달라 일정한재단으로 경영되고잇는 사립학교또는 그와가튼 문화사업기관의 직원들의 봉급이란·좃처럼오르지도못하고 또상여금이란것도별로시롱한것이업서 더욱생활에영향이만허 그대책이 식자간에염려되고잇다 이때 가족수당이란 극히 합리적인제도를 채택하게된것은 각방면의 갈채를받고잇다 그리고 퇴직수당에 대하여서도 종래에 이십년이상 근속한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퇴직당시 월봉의반액에다 재직년수를 승한금액에다가 그금액의 일할오푼을 한한금액을지급하던것으로 이번에는 십오년근속자에게대하여는 종래의 이십년이상 근속자와가치 계산하여 지급하고십오년이상이십년근속한사람에게는 이할을증액하여서 지급하기로 개정하엿다한다

河川改修費
五百萬圓、預金部에서融資

총독부에서는 중소하천개수공사비의부담을 가볍게하고저 대장성예금부보증자금을 융통하도록 교섭한결과 십사년도 중소하천개수공사사업자금으로 총액오백만원을 각도에대하여 다음과갓치 공채를인수하기로 결정되엇다

▲京畿 五四五〇〇〇圓▲忠北 三三五〇〇〇圓▲忠南 五一二五〇〇〇圓▲全北 三〇六五〇〇〇圓▲全南 四九〇〇〇〇圓▲慶北 六〇八〇〇〇圓▲慶南 三六五五〇〇圓▲黃海 三三〇〇〇〇圓▲平南 四四六五〇〇圓▲平北 二〇〇〇〇〇圓▲江原 三九一〇〇〇圓▲咸南 二三五〇〇〇圓▲咸北 二三五〇〇〇圓 合計五〇〇〇〇〇〇圓

陸軍始觀兵式日 朝鮮軍宮城遙拜

조선군사령부에서는 육군시관병식날인 팔일 오전아홉시부터 군사령부국기게양대미테서 전원이모여서 군사령관의훈시가잇고 에지봉하기로되엇다

永登浦에또疫患
이로써府內의發生累計아홉명

부내영등포정(永登浦町)오백오십오번지 권영호(權寧浩)의장녀 오순(五順)(?)은 칠일전연두환가로판명되어 순화원(順化院)에격리되엇는데 전연두환은 알수업스며 이르써 경성부내의 천연두환자는 전부아홉명이다

가죽장사의검은맘

유일오전열시쯤 부내 무교정(武橋町)에사는 피혁상 김모(金某)(?)는 조선은행아페서 만수국지폐 이백이십원을 어더가지고 그은행에드러가 조선은행권으로 바꾸려고하엿는데 이지폐는 이보다조금압서서 조선금호텔 급사가 일허버리고 보경서와 조선은행에게출 하여둔것이므로 김모는 즉석에서 보경서원대게부로너 [illegible] 조를 밧고잇다

白茂線事故

칠일오후 다섯시사십오분경에 백무선(白茂線)연사(延社)로부터 연암(延岩)으로가던 제일친구배이십팔차가 나적(羅跡)유곡(榆谷)사이를 지행하던중 별안간에 기관차두에달린 화차두대가 탈선전복되었다 다행이객차의승객에게는 아무일이 업섯스나 동전(騰川)기관사는 중상하고 기관조수는 경상을입엇다 원인은 조사중이며 사고난현장은 팔일오전열시반에 겨우복구개통되엇다

始政卅年 記念事業計畫

황기 이천육백년과함께 마지하는 시정삼십년을 기념키위하여 총독부에서는 이번가을 시정기념일을 중심으로 여러가지기념 행사를준비중인데 경비약칠만원을가지고 시정삼십년사의편찬 기념전람회의조성 효자절부의표창 기념식과 봉축회등을개최할계획이라한다

精動運動強化
全朝鮮에專任職員配置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황기이천육백년을마지하여 드디어적극적으로 활발한활동을 전개하기로되엇는데 총독부에서는 이에대응하여 전조선의 정동판게진용을강화하기로되어 십오년도예산에 백삼이만원의 경비를세워 운신되엇다 이로써미아마 정동련맹에대한 약사십만원의 보조를제하고남는경비로써 사무판한명을비롯해서 전조선각도와 라진청(羅津廳)각부군도에속(屬)한 명 고원한명한 삼백이십삼명을배치하여 정신운동의 전면적강화를 [illegible]

鐵筆

세상에서 맑고 깨끗한것 가치 조흔것은 더업다▲하늘이 맑고보니 마음도 절로맑고 깨끗해지는 [illegible] 려지기 쉬운 이유로 옛날부터 오늘까지 꼭 가튼 이유로 되여잇는것은 물론대단한것이다▲이땅이 당장 지상낙원이 된다는것만 고 [illegible] 극락세계가 된다는것만도 밧듯이 필요할것은 아니겟지만 적어도 사사된 개인간의 틈부만은 거두어 버리는것이 필요하다▲내이이이자 다른한사람의 존해가 되는것은 아주또업는일이다▲정초부터 살상, 사상의 변고만흘흘 볼때 더욱그러하볼 느끼지안흘수업다

全-조

五選手三年間 團結의열매
全國籠球三連覇完成한 普專籠球主將 趙得俊君談

【東京支社發信】籠球朝鮮의 브배인普專軍이 全日本籠球界를 세번째 征服하엿다함은 今日第一夕刊에 報道하엿거니와 三年連覇의偉業을 完成하기까지에 숨은苦心談을 主將 趙得俊君에게 물으니 趙君이말하는 마디마디가 籠國스포ー츠의 模範이될것은 勿論이오 그들의 團結力이야말로 全日本아니 全世界籠球界의 感激할만한것이 잇섯다(寫眞은 主將 趙得俊君)

우리 一行이 三年連覇의 偉業을 이루기까지에는 스포ー츠界諸氏의 支援과聲援과 東京在學生諸兄의 눈물겨운 應援의 힘이 컷슴을 感謝를 通하여 거듭 感謝의뜻을 傳하여주세요 그리고 일찌기 우리를 指導하 [illegible]

戰況

[illegible]

普專籠球十日凱旋

[illegible]

都市對抗 氷上短評

朝鮮氷上聯盟 金正淵

[illegible]

對鐵道하키ー戰에 延友軍勝利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氷上하키ー一般 第一回戰인 延友(延專出身)俱樂部對鐵道의게임은 七日午後二時十分부터 東京町城大링크에서 梅津、愼兩氏審判下에開始한바 悲壯한接戰끄테 延友軍이勝利하여 今八日午後四時부터 不戰一勝한 船中俱樂部와 決勝戰을行하기로되엇다

延友 5 (2-1 / 2-1 / 1-3) 4 鐵道

新潟高女籠球優勝

【東京支社電話】全日本籠球決勝戰은 七日에國民體育館에서擧行한바 新潟高女對東京女高師附屬高女는 三十二對三十으로 新潟高女가優勝하엿다

廣告

關東重工業株式會社
岐阜市 滿鉄

映畫俳優志願者手引書
映畫俳優協會出版部

裸體美人寫眞集 / 浮世繪美人版畫集
東京市四谷區本村町廿九

文化住宅設計 建築設計·各機械土木 鑛山圖案製作及トレース
東洋圖工社

洋服 朝報案内

會商永吉
京城府鐘路一丁目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丁目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皇紀二千六百年 記念と放資に 國債と債券

日滿物産株式會社
東京府長谷川町

鑛山用機械器具專門
中古搗鉱機賣買
中央商工社鉱山機械部
京城府蓬萊町三丁目四八

新入會員大募集
中學科講義 / 小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朝鮮中學會

가장經濟的인電球는
이세가지特質을살리고잇는電球입니다
明るさ豊富
電力を無駄につかはない
確實に永く保つ
國産電球 ナショナル
ナショナル電球株式會社

書籍目錄 無代進呈
國民書院

◎丸倉式無水精麥機
▲斯界ノ最高權威!! 絕對無水、無砂作業、馬力僅少、能率迅速、粉碎全無、精量最多、砥石長持經費最少
▲能率迅速ニシテ精量ノ最多經費ノ最少ハ本機ノ誇リ!!
東京丸倉機械製作所
朝鮮營業所

弊社重役元胤洙氏以宿患療養中本月五日午前九時別世玆以訃告
世界ゴム合資會社
日華鑛業合資會社
合資會社大和商會
合資會社朝鮮ゴム工業所
株式會社殖産
企業社
京城食料品株式會社
朝鮮建物株式會社
友絲會社
住資同志社

本校財團理事長元胤洙氏以宿患療養中本月五日午前九時別世玆以訃告
京城梨泰院尋常小學校
京城南中學校

吾沺元胤洙氏以宿患一月五日午前九時於京城府御成町三四自宅別世玆以告訃
昭和十五年一月六日
發靷 告別式
子 弟 侄 親戚代表 友人代表
東東東東東仁東允東圭
裵韓安小金朴李
林倍 采良 錫永升
圭益頭民星赫洙永煥明復夫男源根雨

學藝

文壇新年의 토픽展望

崔載瑞・尹圭涉 對談會

裁斷과 解의 岐路

評壇의 新春을 말한다 (上)

尹圭涉 批評不振이라고하나實은 一般的으로 批評에對한認識이 드리어 노파가지안어요?

崔載瑞 批評家의活動이 一般으로 不振하다면 그것은 認定할수업는말이지만 批評

★批評神의不振

이라는말이라면 認定할바게업지요. 이런意味에서 반드시批評家에限한것이아니지만 作家까지라도 敎養이 問題가되는것이 아닐까요 作家가「테ー마」나 方法을 제각기 發見해나가야할것처럼 批評家도 독마찬가지로 각기批評原理나方法을 發見해나가야 할것이니까! 批評이 外見上으로는 不振인것처럼 보이지만 各批評家는 제각기 몸씨 생각하고잇지안을까요? 그러케되면 究竟에는 敎養이問題가되지요

尹 그러케 말하면 崔兄이야기처럼되것지만 또 過去의傾向文學時代에 批評精神이 너무偏頗했든까닭에 거기比較해서보고는 지금을 不振이라고하나보아요.

崔 그時代를 모두神話처럼생각하는데 外見上으로는 勿論그때가 批評이旺盛했다고 할수잇겟지요. 그때에는 모두하理論이 統一이되어가지고 外部에向해지만 지금은 批評家個人個人이 각기 제個性을파고들어갈려고 하니까ー그때는 말하자면

★素朴안批評

이엿지요

尹 八峰洪月이 한창活動할때가 批評이 發揚했다고하지만 그때에比하면 지금이 더째엇지요.

崔 그때에는 政治的裁斷性이매우 鮮明했는데 지금은 그裁斷性으로는 處理하지안는남어지를가지고 그限界에서 일하는것이지요.

尹 傾向派批評이 물러간뒤에 崔兄이던지 李源朝氏가 登場햇는데 아페것에比하면 아주解釋的이지요. 이전批評은大衆의 代辨이엇는데 지금은 批評과 大衆사이의 紐帶가 끈어젓지요. 崔兄이나 李源朝氏는 이런意味에서 批評의轉換이 엇지안엇서요?

崔 裁斷性을가진 批評이 나오면 다음에는 그것이업는批評이나오고…이러케 交代하는것이 아닐까요 結論만가지고裁斷하는것이 旺盛하면 그다음에는 解說하는것이……

尹 交代라고는 볼수업지요. 小說이나 批評을 外部的現實과 끈어서 생각할수는 업습니다 批評原理의喪失이라는것도 外部的現實대문에오는 結果입니다 解釋은各自가 제각기해나갈수잇지만 問題는 李源朝氏가 말한것처럼 批評原理를일허버렷다는데 잇습니다. 批評論이 지나해 서울게부러 이러나기시작한것은 批評이 外見은째왓는데 內容이 原理를가지지못한데서 오는일일걸요

崔 原理가업다고하지만 다난公式化할수잇는 原理가업다던그러라고나할까……

尹 批評의原理를 찻는다는말은

★文學全體

가 그런것처럼 批評이世界認識의 體系로서의 原理를 붓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體系를 붓잡는다는것은 批評家뿐아니라 作家도 한가지로는 길 共同作業일것입니다.

寫眞은 對談하는 崔氏와 尹氏

崔 그러니까 그러케 進求해나가려면 批評을 아쓴다면몰라도써간다면 個個人의 敎養이 重大해진다고 생각합니다.

尹 昨年에 李源朝氏가『批評의不振과 批評精神의喪失』속에서第三論理의 必要를 高調하면서 過去에는 批評이 時代意識을 가젓스나 지금은그것이업서서 裁斷性이나 領導性이업다고 햇는데……事實은批評의 機能은 時代意識가운데 內包된 世界認識의 體系그것속에나와야 한니다. 批評이란 契機가 綜合되는데서 成立이되니까。 이전에는 이두契約이잘符合이 되엇지만 지금은 그러치못하지요. 歷史的社會的 契機가 사람의머리에 옮겨저서屈曲과 偏差가 업서지고淨化된것이 論理的契約일러인데 지금은 歷史的社會的 契機에 偶然性가튼것이 수두룩하게뒤석겨서 論理的契機로 淨化할수업는……

崔 要컨데 過去의批評이란 너무 偏狹해서 어떤作品에는들어가나 다른作品에는 영들어가보지안는것가치… 그래서한편作品을 다루는데는 매우有力하나 다른作品에 다닥치면 아주無力하다던지……

尹 傾向派의批評은 圖式主義公式主義라는 말그대로여서 作品評에 가장잘들어낫지요. 그러나 그當時에도 벌써弱點을 指摘했고 克服되엇다고 생각합니다. 實際로 原理面보다 抽象的이니까 現實과 모든意味로던지 共軛性을 가저야할니다.

崔 그건 事實입니다. 批評家는 어느作品속에고 들어갈수잇서야한니다. 그러라고해서 原理가업다는것은 아니지요.「산트·뻐ー브」가튼批評家는바로

★古典主義

에서 浪漫主義로 옮겨갈때에 나와서 兩쪽을다 評論했지만 그사람에게 그런公式化된 原理가잇섯나요? 그래도 그사람은 아모래도 佛蘭西에서는 지금까지도 第一流의 批評家가아닙니까?

尹 그러면印象批評家에게도 勿論 批評의機軸이 잇섯지요.

崔 分明히잇지요. 그의評論을다읽으면 그全體에흐르는 機軸이야잇지요. 다만公式化할수만업지요.

尹 『크리치시즘』이 機軸을가저야한다는것은 印象批評이나 科學的批評이나 마찬가지지요. (계속)

▽…소문논ー

世界의 귀

亡命者結婚

【포린스톤(米國『뉴ー저ー시ー』州)發同盟】『나치스』獨逸當局으로부터 非獨逸的이라고해서 罪壓을밧고 米國에 亡命한 獨逸文豪로 노ー벨賞受賞者인『토ー마쓰·만』의 令孃『엘리자벳·뽀르기카·마』孃은 이번에『시카고』大學文學部敎授『쥬ー제페·안토니아·보르제』博士와 當地에서結婚式을擧行햇다 新郞『보』博士는『파씨스트』黨에 忠誠을 誓約하기를 拒否한까닭으로本國을쪼처난伊太利人이다 이結婚은 亡命者끼리한 結婚이라고해서 소문조와하는 米國에 라매우평장했다한다

火曜評論

言語의 "怪奇複雜" 性

金起林

△하마디 하마디의 말이 모다 그대로 各其어떤 客觀을 代表하는것은 아니다. 가령「개」라는말은 그말에 該當하는 客觀을 가지고잇다. 嚴格하게말하라면 그것조차도「完全한」客觀은아니다. 웨그러냐하면 잇는것은 하마리 하마리의「노랑개」「검정개」「얼룩이」지 그저개라는 것은 업다. 개수個體를 代表시킨 記號에 지나지 안는다. 如何間에「개」라는말은 그背後에 客觀의무리를 가지고잇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가령「神」이라는말은 그러치 못하다. 即 사람은그가 보지 못한어떤物을 代表시키는 말을 맨드는한편에 또 그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잇는것 想像하는것에일홈을 부치기도한다. 이것이 뒤섞여 가지고는 客觀을 가지지 못한 言語조차가 客觀을 가진듯시 씨어지고 쓰는데서 이른바 言語의 怪奇複雜性이 생긴다.

× ×

△ 新世代라는 말을 現在잇는 社會的 歷史的事實을代表시켜서 쓰는사람도잇다. 또 한편에는 가령[illegible]을 그가잇기를 바라는 하나의 理想으로서 쓰는사람도 잇다 하나는 現實속에사는 것이오 다른 하나는 理想속에 산다. 가령 偶然하게도 詩人李秉珏氏와 慶州町李秉珏氏가 일홈이 가텃슬뿐이다. 가튼 外形은 가젓스나「新世代」라는 同名異人은 各各住所가달럿든것이다. 그래노코 論爭을 해서는 아모것도 아니된다.

× ×

△ 論爭사이에 씨어지는 말들을(今郞는못되여도 적어도 明한 論點이 되어잇는 말만이라도) 밝히서로 理解해노코한다면 問題는 훨신 더 엇게 못잡을수잇슬것이다. 大部分의 論爭은 事實은 서로 外形만가고 內容은 따면인것들을 가지고 觀點와 困難우에서 싸워진다. 말하자면 言語와 怪奇複雜性에속은것이다.

× ×

△ 한동 詩는 말의 論爭이라 한다. 小說인들 안그러랴? 하나 그말만 가지고는 말이 詩의手段이 라는 뜻이지 目的이란 뜻이지 도로지 分明치안타 말이 目的인경은 오직 論爭家에서뿐이엇다 말은 언제고 手段이다. 詩에잇서서도 勿論그러타 마치 말이 詩의目的인것처럼 誤解되어 이 誤解는 詩壇三十年代의 前後의 三分之一을 詩의創作品의 文市를만들어 버렷다. 學典만잇고 그래서그속에서 아롱다워보이는 말을 집어모으면 차란한 하나의 繪畫이된다는 무서운 詩術이 橫行햇다. 言語의 怪奇復雜性은 여기서도 놀라운 結實을햇다.

× × × ×

二等 當選詩

(妓)(女)

李史羅

가야금이 조타.
한쪽지 동동 떠워 춤이 또 조타.
외씨 버선ㅅ코로 愁心을 밟으며
아지장 거름으로 내게 와도 조타.
열두폭 영초치마에 情怨을 싸들고
와르르 달려들어 부사안겨도 조타.

李朝의 黨爭의 禍 ②

黃義敦

(三)東西人의激戰

東西人의싸움이 날로 激甚하여가므로 當時엔 靑年士類의 中心人物이라할만한 李珥가 그調停을自任하여 或은沈金兩人을 地方官으로 쪼차내고 或은 兩方의和解를 勸誘하며 西人이得勢하면 西人을抑制하여 東人을救護하고 東人이 優勢하면 東人을달래여 西人을扶助하려 努力하엿스므로 初期十年間은 保和狀態를維持하여왓섯스나 宣祖十七年甲申에 李珥가 不幸히 몰아가므로 調停役을일흔 兩黨의싸홈은 더욱 激甚하여졋다. 그래서 이로부터六年間은 東人의全盛時代로서 西人이 一蹶에 退縮하지아니할수업게되엇섯다. 만은宣祖二十二年(己丑)十月에 東人鄭汝立의 謀叛가 綻露되면서 그의連累로 鄭彦信 李潑 鄭介淸 崔永慶等 東人의 多數가慘禍를 입게되엇섯다. 이가 곳 黨爭史上第一次의 流血獄으로서 東人의勢力가 조곰꺽기고 鄭澈 尹斗壽等의 西人이 一時에 다시政界에 進出한 機會엿다。

그러나이로부터 三年을지나서 辛卯二月에 左相鄭澈의擇儲를先請한事件으로因하여 宣祖가 크게震怒하매 그에따라 平素에鄭澈을 미워하던 東人이蜂起하여 크게攻擊하므로 鄭澈以下의西人이 다政界로부터 總退却하게되엇다.

그러나 이듬해 壬辰四月에 亂이 일어나자 宣祖께서開城에 移駐하면서 領相李山海 左相柳成龍等東人內閣이 責任을지고 辭職하엿고 尹斗壽、鄭澈等의西人이 다시 進出하여 東西人이混用케되므로 亂中에 쪼껴다니면서도 東人은西人을 攻擊하고 西人은東人을排斥하엿스나 鄭澈 尹斗壽等이 이어 沒落이되고 그에따라서 西人이거의다退縮이되엇섯다。그래서宣祖末朝十餘年間은 東人의 全盛時代가 되엇다.

(四)南北人의分裂과北人의全盛

東人이全盛하매 그中에서도 南北二黨으로 갈라지게되엇섯다 가튼黨中에서도 權利와地位를다투기위하여 또角立이되엇던것이다 만은 이南北人의 分裂된 原因에대하여는 異說이紛紛하다 槍山雜記엔

「初禹性傳、有盛名、及登第入侖苑、禹之父彥範、爲成從縣令、禹親往來、留惜於平壤妓、未幾、禹之父以病歸、監司欲送其妓于禹家、及禹遭喪、一時名士咸會、平壤妓披髮出入、李潑以爲賦父將死棄眠、禹以何心畜妓來乎。攻禹甚力、知禹之本情者、明其大不得、潑在北岳下故、爲黨謂之北人、禹居南山下故、救禹者、謂之南人、此東人之分爲南北此者也」

라하여 李潑과 禹性傳두사람의싸움으로부터 南北人이갈렷다하엿고 混定錄엔

「初柳成龍與李潑有隙、成龍一隊、成龍爲首而、金誠一、李誠中、李德馨等爲羽翼、潑一隊、潑爲首而、鄭汝立、崔永慶、鄭仁弘等爲羽翼、互相排斥(中略)己丑獄起、成龍實於筵中、請李敏中先見而、其時爲讜、謀睦趾、以救鄭仁弘前所、仁弘遂與成龍、永爲仇敵、始有南北之分」

이라하여 柳成龍一隊(南人)와 李潑・鄭仁弘一隊(北人)의 仇爭으로부터 南北人이 갈린것다하엿스며 燃藜室記述엔

「宣祖辛卯、兩司論鄭澈之罪、掘金不泓、大諫洪汝諄、劾已傳削職、南北之論始岐而、怨者目爲北、救者目爲南」

이라하야 李山海 洪汝諄은北人 禹性傳은 南人으로서 宣祖辛卯에 처음으로 分黨이된듯시 씨어잇다.

以上 여러記錄을 綜合하여보면 南北人의 分黨된原因이 어찌되엇든지 東人中에서 禹性傳、柳成龍等一隊는 南人、李潑、李山海、鄭仁弘等 一派는 北人으로 갈라저 싸워던것이 事實인듯하다 그러고壬亂後에 六七年間ー柳成龍이首相으로 秉政하면서 南人이朝廷에 布滿하여 勢力을 떨치므로 北人이 크게 不平하여 狙擊의 機會를 엿보더니 戊戌十二月에 辭誣使行을 辭免한까닭으로 宣祖께서 柳에게對하여 不平의 氣色을 보이시자 文弘道南以恭等 北人一隊가 蜂起하여 柳를크게攻擊하므로 마침내 柳의官爵을削奪하엿섯다. 그러고 李山海、柳永慶等北人이 이어首相이되엇스므로宣朝末葉十餘年間은거의北人의專政時代가되엇섯다。

이러是北人이 全盛하매 그中에서도 또한分立하여 鄭仁弘 李爾瞻、李慶全、洪汝諄一派를 大北、柳永慶、南以恭、柳希奮 朴承宗一派를 小北이라하여、서로싸우기를 마지안햇고 그박게도또 鄭昌衍、李溟等은中北、小北中에서도 南以恭은淸北、柳永慶은濁北이라하여 種種한名目으로 分裂이되엇다。

四十一年戊申에 宣祖께서갑자기 昇遐하시고 光海主가 卽位하매 鄭仁弘李爾瞻等大北黨이 蜂起하여、小北의 首領柳永慶을 攻擊하여 죽엿스므로 柳希奮、朴承宗等小數의 外戚關係를 가진者 以外엔 小北黨이 거의다 쪼껴낫다 그리고 이어서 光海主 十五年間엔、大北의全盛時代로서 李爾瞻、鄭仁弘等이 專橫하엿고、西人과南人은 머리를들지못하엿섯다 그러므로 그네의不平이 만흔中에 더욱西人은 黨論이 發生한뒤로 五十年間에 李珥의調停時代와 尹斗壽、鄭澈等의 一時的秉政時代가잇섯슬뿐 長時日間 排斥과壓迫을 當하여왓스므로 不平이 滿滿하여 오직機會만엿보고 政府의[illegible]이엇던것이다 마침光海主의亂政이 갈수록甚하여지면서 朝野의人心이 離散하여감을 알게된西人一隊가 暗暗中에革命을 計劃케되엇다.

新刊紹介

▲時光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酒泉里町一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二錢

▲滿映畫報 新年創刊號 發行所 新京特別市洪熙街六〇二號 滿洲映畫協會 定價三十錢

▲朝鮮의敎育研究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五丁目 京城師範附屬小學校內 朝鮮初等敎育研究會 振替京城一三三七六番 定價四十錢 送料二錢

▲朝鮮實業俱樂部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一〇〇 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內鮮一體 創刊號 發行所 京城府孝子町一三八 內鮮一體實踐社 振替京城三一一七八番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酒の朝鮮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阿峴町 朝鮮總督府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組合中央會 振替京城一八二九一番 定價五十錢

▲農民生活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五錢

▲金融組合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振替京城三〇〇九番 定價三十錢

▲太陽 創刊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七七 漢陽閣內 朝鮮文化社 振替京城三一二九一番 定價四十錢

▲經濟月報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 定價五十錢

▲調查月報 十二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東洋之光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東洋之光社 振替京城二八五〇九番 定價四〇錢

▲聖書朝鮮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聖書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二十錢

▲朝鮮工業協會會報 十一月分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朝鮮社會事業 一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內 朝鮮社會事業協會 振替京城一四五四番 定價二十錢

▲向上 新年號 發行所 東京市澁谷區千駄ケ谷四丁目六六八 修養團 振替京城一〇九〇三番 定價二十五錢

▲救癩村 第十二號 發行所 海州府王神里二一〇海州救世療養院出版部 定價十錢送料一錢

浦項

慶北浦項港 水產業 金斗河

慶北浦項港 海產物販賣 鮮魚仲買 鄭淵業

慶北浦項港 海產物販賣 鮮魚仲買 朴敬魯

慶北迎日郡大松面 張斗煥

慶尙北道會議員 金龍周 浦項邑

浦項 浦項醫友會

慶北浦項川口町 水產業 岡部與一

浦項水交會
慶尙北道水產會
慶北漁業組合聯合會
迎日漁業組合
第三區機船底曳網漁業水產組合

賀正

朝鮮慶北浦項邑 浦濱罐詰工場本店 浦濱 秋吉 電略(ウラハマ)又ハ(ウラ) 電話 五一番

浦項 金曜會

慶北浦項本町 入丸證券社

慶北浦項仲町 海陸物產委託賣買 朴乃壽 電話二六三番

慶北浦項港 水產業 徐廷錫

慶北迎日郡浦項港 水產業 李鍾球

慶北迎日郡浦項邑 浦項釀造株式會社 電話一一三番

只杏面良浦 良浦漁業組合

浦項警察署

迎日郡浦項邑 邑會議員 朴瑛鎔

慶北浦項邑本町 浦項邑會議員 大月商店 朴泰學

慶北浦項仲町 鶴根自轉車商 主 朴道根

迎日郡東海面大冬背洞 迎日漁業組合 總代會議員 金錄俊

清酒壽露醸造 古川釀造場 電話浦項六番 振替釜山六番

慶北浦項 林兼商店出張所

慶北浦項 水產業 鄭相五

慶北浦項邑川口町 生鮮仲買 蒲鉾製造 渡邊蒲鉾店

燈臺酒造株式會社

慶北浦項本町 海產物販賣 大英商會 主 朴榮熙 姜致三 電話 二五五番 一九〇番

迎日郡浦項邑長 曾田篤一郎

浦項稅務署

浦項朝鮮酒酒造組合

迎日郡大松面 水產業 朴正源

慶北浦項港 迎日漁組 朴相高

慶尙北道會議員 金東德 浦項邑

慶北浦項港 權昌祚

慶北浦項 浦項藥酒株式會社

迎日郡曲江面 鄭日善

曲江面長 鄭淵翊

迎日郡神光 神光公立尋常小學校 後援會長 李東基

迎日郡大甫港 金東旭

迎日郡東海面九萬 徐雨洪

迎日郡大甫港 河斗浩

迎日郡大甫港 甫川漁村振興會

迎日郡杞溪 李殷雨

迎日郡東海面長 金斗瀞

慶北九龍浦 滄洲面事務所 職員一同

迎日郡大松面長 李鍾得

浦項邑 公立中初等學校 職員一同

慶北迎日郡浦項邑浦項洞 慶北物產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斗河 支配人 梁舶鍾

慶北浦項港 浦項運輸株式會社

浦項大正町 印刷製本 文化堂印刷所 電話一七六番

慶尙北道浦項邑浦項洞 杉原合資會社 浦項出張所 電話二〇 一四六番

慶北浦項 迎日郡守

慶北浦項 浦項弓道會

慶北浦項港 鮮魚仲買 朴尙學

浦項 李圭炫

慶北浦項邑 漁村振興組合 組合長 金天伯

迎日郡大甫港 漁村振興會 會長 姜俊基

迎日郡東海面 林斗承

興海面長 李洪珪

慶北浦項 株式會社 田中貢商店

興海酒造株式會社

迎日郡興海面中城洞 鄭基在

迎日郡[illegible] 朴宇錫

迎日郡曲江 六中醫院 金秉禧

裡里

全北裡里邑南中町 天一ゴム裡里工場 天一ミシン製作所

裡里 郭基奉 電話五一番

裡里木曜會

裡里料理屋組合

益山郡初等學校 職員一同

全北益山郡北一面新興里 佛法研究會總部

裡里晦會

裡里邑事務所 職員一同

益山郡北一面小登里 振興會長 卓元植

裡里京町 三山醫院 院長 金炳洙 電話三〇九番

裡里邑榮町 天光堂時計店 主 金鎭敎

裡里榮町 文化洋服店 主 金錫熙

裡里產業組合

裡里 天主敎神父 金基奉

裡里放送局

湖南線裡里本町二丁目 姜興善商店

裡里榮町 三和製靴商會 主 朴德奉

湖南線裡里榮町一丁目 布木・各種ゴム 禹濟洪商店 電話二六一番

裡里稅務署

職員一同

全北裡里邑京町 裡里藥局 藥劑師 李允煥

裡里邑榮町 金溶培自轉車店 電話二四九番

益山郡八峰面石岩里 面協議會員 李承智

裡里 金學伊 電話二七七番

益山郡八峰面龍堤里 金鳳基

益山郡八峰面石岩里 金南學院 院長 李東鎬

裡里邑本町一丁目 新藥賣藥 正山堂藥局 金圖紀

裡里榮町 德信商會 主 黃玄默

裡里邑中町七二 金永康

裡里京町 金顯昇

全北裡里邑京町一三八 中央皮革商會 主 楊光

裡里榮町一丁目 帽子專門 甲子屋帽子店 主 金河在

裡里榮町一丁目 大田印刷所 金浩斗

全北道會議員 蘇鎭文

朴智根

裡里 金琪坤

印刷 活文堂 主 蔡煥 裡里 電話三七五番

北一面事務所 職員一同

豐基

京慶線豐基 朝鮮料理 大興館 主 李有順

牧山豐基鑛山事務所 姜震元

京慶線豐基 綿布雜貨 石一奎商店

賣藥人蔘販賣 洋藥新藥 天命堂藥房 主 禹斗命 振替京城九九〇五番

京慶線豐基 婦人機業所 主 宋碩洪

豐基面三街洞 稻葉永信鑛山 所長 張炳哲

京慶線豐基 三光醫院 公醫 尹明烈

京慶線豐基 豐基酒造株式會社 李宗淳

京慶線豐基 豐基蔘業組合

豐基寫眞館 姜燮斗 林榮植

京慶線豐基 洋服 河成洋服店 主 河容宇

京慶線豐基 朝鮮料理 新豐館 主 金月仙

京慶線豐基 林在周

京慶線豐基 洋品百貨 十字屋 主 李

榮州郡 面長 李昌奎

慶北豐基 面長 李元永

京慶線豐基 入齒師 金禮東

京慶線豐基 三南醫院

京慶線豐基 共和社陶器部 朴容勳

京慶線豐基 宋志熔

京慶線豐基 綿絲布木 豐基白蔘 三和商店 主 宋志昱

鎭南浦

鎭南浦府碑石里三五番地 加德組 電話六五四

鎭南浦 三和金融組合 李東鉉

億兩機里長老敎會

財産및投資對象으로서의土地 ⑦

朴 克 采

資本主義의現段階는 金融資本主義時代이므로 現在의中心的 財産形態는 債權的財産일것이며 이債權的 財産이다른것이아니고 우에서도 말한바와가치 利子請求權이다. 大槪 金融資本主義에 잇서서는 貸附資本의 所有와 生産資本의經營이 分離됨에따라 資本으로서의 貸幣貸附行爲가 資本의 循環에잇서서 獨自의過程을 形成하나니 이러한條件에서 所謂貸附資本이라는 것이 特異한 範疇의資本으로登場하게된다. 이리하여 資本은 貸附資本과 生産資本으로分化對立하게되는데 이分化對立은 반드시 貸附資本家와 生産資本家(産業資本家)와의分化對立을意味하는것은아니다. 이것은銀行을通하여 結合되나니 이러한對立統一의形態로 發展된 資本을 世人은 金融資本이라고 부르는것이다. 何如튼 이分化는 資本蓄積, 集積과 商品의 信用取引의條件의 發展에因한 信用經濟의成長을 條件으로하는데 資本主義社會가 이까지 發展되면 從前에잇서서와가치 零細한貸幣資本으로서는 企業을 獨自的으로 經營하지못하게된다. 그리하여 社會의零細한 貸幣는 結局 貸附資本으로서와게 活動할條件가어게된다. 이러한貸幣는 銀行에 集積하여 金融資本의資格으로서만 活動하게된다. 그럼으로 金融資本은 반드시貸附資本이다. 原則上 金融資本의 機能으로서는 利潤을追求하는生産資本과는 別途로 利子를 追求하는것을目的으로하여 貸附資本과는 機能的으로 分離되는 이다. 各各 獨自의 過程에서 循環을하며 金融資本은 이두가지形態로 同時에 運用할수잇지만 그外에서는 貸附資本을 金融資本에 提供하는方途로서만 運用할수잇슴이다. 이러한機構는 金融資本主義에 特有한것이며 貸附資本은 이러한特有의 機構속에서 利子를産出하는데 貸付資本의存在形態가 債權이며, 信用이고, 이것은社會에서 利子를 産出하는 元本이되어잇다는 所謂의 元本이다. 그것은 活動하는見地에서는 債權的財産이것이다. 即貸附資本은 債權的財産의 一形態를 形成하고잇다는見地에서는 利子라는所得의 元本이되어잇다는 利子貸付資本=債權이 形成하는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貸附資本의 方式을 明白히 하엿스며 이方式의 見地에서는 財産이라는 것이 이를 附加資本化하는것이 貸附資本의 財産化의 形式이다. 이러한 財産의 貸附資本化에 依하여 所得의 源泉을 利子의 元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所得의 源泉은 債權的財産 即 債權的 財産이라는 것이 金融資本主義時代에 잇서서의 一般的財産觀念이 되고잇는것이다. 利子의元本으로서의 一定한 貨幣額을 가르치는 것이 金融資本主義時代

代에는 當然히 有價證券(株券, 公社債券, 手形等)이 支配的인 財産形態가된다. 有價證券은 貸附資本을 條件으로한 有價證券의形態로 成立한것이다. 이 有價證券的財産으로서의 有價證券의發展에 從하여 金融資本主義가 된다. 그럼으로 金融資本主義下에는 이 財産으로서 有價證券이 上位 그價格이 有價證券에 貸附資本이다. 收入되는 所得을 平均利子率로 資本還元化한것이라는 資本의 原則이 여기서 有價證券의 商品化 즉 財産의 貸附資本化는 上述의 原則을 確認한 것이다. 貸附資本은 그自體가 資本으로서의 意義를 具有하지 못하엿다는 意味에서 資本이 아니다. 그러나 財産의 現實的 價格이 即流通에잇서서의 一定한 貨幣額으로서는 有價證券이 얼마인가에 依하여 금어진다.

여기서 한마디 注意할것은 金融資本의 財産形態가 債權的財産이라고하여 決코 金融資本主義時代에는 物權的財産形態가 그存在의 意義를 喪失하는것은 아니라는事實이다. 金融資本은 産業資本에 代하는 것이 아니고 現實的 基礎로하여서만 成立하고 그러하여 前者는 後者에 內在하는 資本主義 發展의 諸形態가 되어있다는 것이 그러하여 金融資本主義時代의 債權的財産은 物權的 財産의 基礎로하여서 成立하는 것이다. 여기서 法律的으로 規定하고잇다. 또 이를 經濟的으로 말하면 財産의 貸附資本化는 이러한 意味에서 債權的財産이 近代的 資本主義社會에서는 法律的으로 私有財産이라고할 것이다. 封建時代의 財産形態가 物權的財産이엇슴은 이와 다른 바이다. 그러나 物權의 觀念은 있서서 이는 何等의 直接關係가 업는것이다. 近代的 物權的財産은 封建時代와 달라 商品流通의 全面化에 따라 資本主義的 私有財産의 法律的 表現으로 成立된것이며 資本의 流通에서 生하는 信用經濟 即金融資本의 發展에 따라 債權의 比重이 커진것이다. (未完·筆者)

正租百萬石買上

需給調節과移出量確保코자

◇…農林局에서內定

農林局에서는 朝鮮內의需給調節과 內地移出量을 確保키爲하여 出廻期節을 通하여 正租百萬石의 買上을 行하고 朝鮮米穀市場에서 保管키로 內定하엿다 右買上資金은 一部는 預金部資金으로부터 求키로하고 目下東京에 가잇는 永田財務局長이 大藏省과 交涉을 進行코잇다

移出米卄萬石

西朝鮮서積出

雜穀과의 三角배ー러ー制에依한 朝鮮米 二十萬石의 內地移出은 目下全南 海州 鎭南浦兩港에 集荷되어 積出準備가 進行되고잇는데 鎭南浦港에서는 十日까지에 約三千噸을 出荷시킬豫定이며 海州도 目下念慮업서 滿州에서도 配定 七萬石에 對하여 貨物輸送은 滿洲當局의 方針에 依하여 輸送協會側과 提携하여 着着積出準備가 進行되고잇서 今月末까지는 大體로 完了될 豫定이라하며 仁川港으로부터의 出荷配定은 集荷에 對한 地理的 關係로 今回는 除外되엇다

土地改良事業

地下水利用

三年計畫으로調査

農林局에서는 將來의 土地改良策의見地에서 今年一月一日부터 事業에 地下水利用을 積極的으로 하기로되어 其準備로서 于先昭和十五年度부터 三個年計畫으로 地下水의 槪括的調査를 進行키로決定하엿다

滿洲國幣交換

九百萬圓

無手數料取扱分

總督府에서는 朝鮮內의金融政策의見地에서 滿洲國幣의 朝鮮內의 流通을禁止하기로決定하고 그準備工作으로서 滯留되어잇는 滿洲國幣를 一掃하고저 昨年十一月一日부터 無手數料로 鮮銀券과의 交換을 開始하엿는데 마감인 昨年十二月三十一日까지의 交換槪算은 鮮銀二百四十萬圓 金組六百五十四萬圓 合計八百九十四萬圓에 達하엿다

專賣局新規事業

一億圓收入을目標

◇…鈴川專賣局長談

鈴川專賣局長은 八日朝出入記者團과 會見하고 明年度事業計畫에 對하여 如左히 말하엿다

明年度專賣收入

一億六百萬圓!

明年度의 專賣收入은 一億六百萬圓에 達할모양인데 十四年度에 比하면 二千八百萬圓의 增收이다 煙草의 耕作面積은 明年度에 二千百町步를 擴張하여 二萬四千町步로하고 再乾燥工場二個所를 南朝鮮地方에 新設키로 되엇다

災害保償制實施

明年度부터 懸案이던 災害補償制度를 實施하는外에 忠北, 淸州에 耕作組合指導員養成所를 開設키로되엇다 煙草의 製造는 大體兩切, 口付百億本, 刻四百萬貫을 豫定코잇다

北朝鮮工場增設

卷上機十數臺를 增設하여 印刷工場의 建築에도 着手하고 製造工場도 北朝鮮方面에 一個所增設하기로되엇다 輸出은 大體 二十億本, 葉煙草五百萬키로를豫定

北支의米穀配給

物資委員會에서統制

北支蒙疆政府에서는 北支에잇서서의 邦人의 米穀配給을 統制하고저 邦人食糧輸入配給中의 一月一日부터 中央委員會에서 米穀의 一切의 輸入을 統制하기로 決定하여 米穀輸入商은 同委員會設置에 依하여 新設하고 北支는 北京에 設置하고 지금 物資對策 事務所에서 中央會로 北京, 天津, 今回北京의 豫定 八日總督府外 事務所에 通牒이 있엇다

連川서人蔘耕作

人蔘은 明年度에 새로이 京畿道坡州郡連川郡을 耕作區域에 加하여 一府八郡으로하고 五萬七千坪을 增設하며 總耕作面積을 百五十七萬坪을 擴張키로되엇다 明年度는 專賣局으로서는 待望의 一億圓에 到達하여 劃期的이므로 그實現이 向하여 邁進하겟다

十四年下期

銀行業績

一齊히好績!

昭和十四年下半期의 鮮銀殖銀을비롯하여 地場銀行業績은 一言으로 말하면 未曾有의 好成績裡에 越年하엿다 即預金方面에 잇서서는回收와 如何한 豫想外로 良好하여 年末까지는 事害의 影響도 그의業績의우에 나타나지 안흔 狀態이다 그리고 回收良好로 全般的으로보아 資金의 回轉率 또한 好調로 銀行別로 보면 다음과갓다

鮮銀 各支店의數字가集合되지안엇스므로 不明이나 此亦莫大한利益을 豫想하여 總額은八百萬圓以上에 達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 當期는 償却을主로하여 配當은 前期同樣六分의 据置로內定하엿다

殖銀 當期의 公表利益金은 三百十四萬六千二百三十五圓으로 此를前期上半期에 二百八十萬五千六十八圓에 比하면 三十四萬一千百六十七圓의 增加이다 그리고 公表利益金은 三百十四萬六千圓에不過하나 利益金을整理로보면 實로 莫大한것으로서 內容의充實은 놀랄만한것이다 總會는 二月十四五日頃開催의豫定으로配當은九分据置이다

商銀 期末의預金一億八百五十萬圓貸出九千四百五十萬圓으로此를前年同期에比하면 預金에서

이外에도 前期의 二千萬圓을비롯하여 二分의增配는 可能한데 漢城銀行이 一分增配外 今期는 利益金은 社內保留又는償却에잇서서 內容充實을 計하게될모양이다 各

鐵道貨物運賃

割引制度實施

十五日부터全體的으로擴大

鐵道局에서는 戰時生産擴充國策에 順應하여 來十五日부터 貨物運賃割引制度를 實施하기로되엇다 支那事變의 進展에따라 軍需資材의 急速한充足과 大陸經濟建設資材의 圓滑한供給을 하여야될 緊要性과 朝鮮經濟에잇서서도 重工業部門을 樞軸으로한 生産力擴充政策의 敏速한 遂行을 必要로 하게되엇스므로 此等內外의 新情勢에 對應하여 從來 生産力擴充物資에 實施하여온 局部的乃至應急的인 割引運賃을이번에 全般的으로 檢討하여서 全體的으로 有機的으로 運賃割引을 實施하여서 戰時國策이다 生産力擴充에 協力하기로 된것

그適用될範圍는 生産力擴充關係物資의 原材料와回收廢品과 山漁村의 生産關係物資의 三部門이며 오는九日에 그割引內容을 發表하게될터이다 低減額은 昭和十三年度의 實績을基礎로하여 計算하여서

◀生産力擴充資材로百六十五萬圓

◀回收廢品으로 十一萬圓

◀山漁村生産資材로三萬五千圓

으로 計百七十八萬五千圓에 達할모양이다

日銀券收縮

鮮銀限外發行도激減

八日에繰越된 日銀券은六日繰越高에比하여 一億六千百八十七萬一千圓이나 減少되어 三十二億四千七十一萬八千圓으로 되고 鮮銀券도 四億三千二百五十一萬四千五百八十八圓으로서前日에比하여 七百五十二萬五十二百九十五圓의 收縮이엇다 따라서 限外發行도 前日의三千四百六十一萬二千八百二十五圓五十八錢으로부터 一千五百六十一萬六千四十四錢으로 激減되엇다

貯銀 當期總利益金은 三百十八萬六千九百五十八圓 當期總損金二百七十三萬二千九百三十三圓으로 差引當期純益金은 四十五萬三千二十五圓으로 此를前期越益金七萬九千十四萬四千八百八十圓 當期利益金은二十一萬八千六百六十圓의 增加하여

東銀 下半期末의 預金은 二千七百六十萬圓인 各激增을示하여 預金貸出에서均衡을 어더 合理的經營을示하엿다 公表利益金은 二十七萬一千圓으로 配當增配與否는 未定이다 總會는 來二十六日午前十一時開催豫定

漢銀 下半期末의 預金은 七千八百九十萬一千圓 貸出金은 三百七十四萬三千圓 前期同樣八分의 据置로內定하엿다 그리고 當期總會에서 配當 定款改正에 依한 重役二十一名補選을 行하기로되엇다

(鮮銀以外 各銀行業績 續)

漢城 五十三萬二千六十九圓이다 十二月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會議 株主總會開催하는데 配當은 四分으로內定하엿다

十四年中朝鮮貿易內容 (三)

第三國輸出重要品

品名	昭和十四年輸出額 千圓	前年比增減(△) 千圓
魚粉	二、九八九	一、四四八
綿織物	一、四〇二	五八〇
硬化鐵器	一、〇一七	一四〇
電球	七二三	一三七
陶磁器	三四七	△一三四
玉蜀黍	二九一	二〇五
魚介罐詰	二六〇	四九
魚油	一五三	△一六五
鉛	一一九	八〇
煙草	一八	△六〇
紅蔘	八一	七九
薄荷腦	七二	七二
地金	三五	三五
베니야板	三四	二九
티ー스	三三	四
薄荷油	三三	一九
冷凍鯨肝	二九	一九
人絹織物	二五	二五
硝子器玉	一九	△六八一
同	一七	一七

對滿、關、支輸入重要品

品名	昭和十四年輸入額 千圓	前年比增減(△) 千圓	其中對支 千圓	同增減
粟	一九、六五五	六、一一〇	八、二二〇	同
豆類	一五、七九一	八、九七一	八、九一一	同
作蠶生絲及綿糸	一三、六六九	一三、五二二	五二三	同
石炭	一〇、八九〇	四七四	三二二	同
硫安	四、二七九	△三、〇五九	△二、〇五九	同
黍	三、〇四八	一、八九八	一、八九八	同
豆糟	二、五一七	△	五五五	同
高粱	二、三六九	二、三三三	二、三三三	同
燕麥	二、三〇〇	一、一〇〇	一、一八五	同
天日鹽	二、二四九	三、九一二	一、九一四	同
玉蜀黍	一、七四〇	一、六八八	一、六八八	同
胡麻子	一、五八四	二、二一九	二、一九六	同
木材	八九八	△一、五七九	△一、五七九	同
蕎麥	一六九	一四二	一四五	同
棉花	四六	△五、六一四	△五、六一四	同

(二) 對第三國輸入重要品

品名	昭和十四年輸入額 千圓	前年比增減(△) 千圓
生護謨	三、四五三	△一、二二五
繰綿	九、〇九六	△一、八〇七
機械類	六、七〇七	△三、八三六
燐鑛石	三、四四〇	一、七〇八
玉蜀黍	二、九二〇	二、九二〇
天日鹽	三、〇二〇	三、〇二〇
石炭	一、五〇〇	△二、五〇〇
木材	一、六〇〇	△一、六〇〇
石膏	五四〇	二一〇
石綿	五五〇	三五〇
팔프	三五〇	三五〇
葉煙草	三五〇	△一、〇三〇
皮類	一	△一、二〇一
砂糖	一	△六〇〇

對內地貿易

昭和十四年에 잇서서의 對內地貿易은

◀移出 七億三千六百九十三萬圓

◀移入 十二億二千九百四十二萬圓

◀合計 十九億六千六百三十五萬圓

◀移入超過 四億九千二百四十八萬圓

으로이것을 前年에比하면 移出은 二千六百三十九萬圓(四分)이 減少되고

昭和十四年對內地貿易額

	昭和十四年 千圓	同十三年 千圓	增減(△) 千圓
移出	七三六、九三四	七六三、三二五	△二六、三九一
移入	一、二二九、四一九	一、〇七九、三四四	一五〇、〇七五
合計	一、九六六、三五三	一、八四二、六六九	一二三、六八四
移入超過	四九二、四八五	三一六、〇一九	一七六、四六六

으로서 合三億四千二百四十六萬圓 의(一割一分)各其增加이엇다이와가치 移出增에比하여 移入의 如左하다

增進이 一層顯著하엿기때문에其 貿易入超額은 記錄的巨額에達하여 前年의 一倍三分에 增加하엿다

다음에 主要貿易品의 內容을보면 移出에잇서서는 其大勢를 支配하는米가 前秋來의 減收와 鮮內 消費增을 反映하여 出減이 稀有의 不況을 呈하여 近年의 五百二十萬石(五割四分)의 減少로 五千二百萬圓(五割一分)이 減하고 牛皮, 大麥亦是 朝鮮內의特殊需要의 旺盛으로因하여 出荷不振狀態이엇스나 其他는 大體로 出荷가好況을呈하고 就中地下資源開發計劃의 進行에伴하여 含金銀銅鑛을 首位로 其他重石鑛等의 出荷가 驚異的 巨額에達하여 此等主要鑛産物이 잇서서 七千七百萬圓(七割)의 激增이엇고 肥料, 生絲, 綿織物, 魚油, 鮮乾鹽魚, 棉花, 乾海苔, 海藻, 林檎等이 顯著히 增加되엇다

一方移出에잇서서는 統制强化를 反映하여 綿綵布, 肥料, 人造絹絲, 棉花, 打綿, 牛皮等 年初以來 綜絡不況 狀態이엇스나 各種資源開發工作의 進捗에伴하여 機械類에잇서서는 五千萬圓 木材에잇서서 一千七百萬圓 石炭八百萬圓 洋灰三百萬圓의 各各增加이며 또絹織物은 自由販賣禁止로因하여 二千七百萬圓 「스ㅡ피」織物도 國策織物로서 綿毛, 人絹織物에의 買替으로因하여 一千九百萬圓의 各各增加이엇고 其他白米, 毛織物, 小麥及 肌衣等의 入增或은 一百萬圓乃至 一千萬圓을 算하는 等 主要品의 大多數는 一萬圓

如左하다

移出品

品名	昭和十四年移出額 千圓	前年比增減(△) 千圓
米	四九、三四六	△五五、三六六
肥料	三三、一三三	三、二六六
含金銀銅鑛	二九、三二六	三三、二六六
生絲	一四、八五〇	一、七〇
大豆	一三、〇五〇	△一〇、八二〇
鮮乾鹽魚	一六、〇五七	四、〇一〇
重石鑛	一六、一三〇	一六、〇一七
石炭	一四、〇一〇	一、二三〇
綿繰綿	一二、六二〇	一、四一七
魚油	一一、八五〇	一〇、一四一
綿織物	一〇、六〇〇	九、二六〇
乾海苔	九、七〇〇	二、〇一三
牛皮	八、九四一	△二、五一二
金鑛	七、〇二〇	六、〇一六
含金銀銅鉛	七、〇八〇	七、〇八〇
鐵鑛(特鐵除)	七、〇三〇	△一、九一九
黑鉛	五、二一九	一、二五二
硬化油	五、八八七	二、八二九
林檎	五、一二三	一、八六三
脂肪油	四、三三一	一、三五四
海藻	四、七四四	一、三六一
木材	四、三二〇	△一、三〇〇
牛皮	三、七三六	△一、四八一
太	三、一七六	△二、九一六

移入品

品名	昭和十四年移入額 千圓	前年比增減(△) 千圓
機械類	一二七、六一六	五〇、九四一
人絹織物	九八、五六〇	二七、一七三
絹織物	四四、一八〇	二七、二七八
木材	三六、六〇四	一七、三五六
스·파織物	三一、五七一	一九、三八五
石炭	三〇、八〇〇	八、〇五四
紙類	二六、九三〇	一、一一〇
肌衣	二四、八三〇	三、六五六
毛織物	二三、二八六	一四、〇〇一
肥料	二三、一三三	七、〇四〇
米	二〇、一七〇	一〇、五〇六
陶磁器	二〇、六三〇	二、一一九
砂糖	一九、二〇〇	五、一一五
釘類	一八、五〇九	三、二〇六
綿織物	一八、三六六	△三、〇三二
小麥粉	一七、〇四〇	△一、三〇四
小麥	一六、一〇〇	六、二〇八
고무底布靴	一五、一七五	一、八二二
洋灰	一四、一五四	三、一一六
漁網	一四、一三〇	△一、六一〇
人造絹絲	一三、九一九	七、六五〇
酒	一三、〇八〇	七、九一六
麻織物	一二、一四〇	一〇、一二一
牛皮	一一、八一〇	△一、〇五八
打綿	一一、〇二〇	△一〇、〇〇
絹紡絲	一〇、九〇二	△一、三八九
綿綵布	一〇、〇〇〇	△二、六三〇

株式

前場採合

底堅裡에

今日의市勢 八日

前場保合 休日을지난今朝는 東新二低인 百五十圓四, 鐘新不變인 百八十四圓에 寄付된後 一時反落이엇다가 東新은 四圓 ノ까지 앗슴으로 續進되엇스나 其他는 戰前의狀으로 持合을示하다가 結局東新百五十圓一圓蘭가 八十二圓八 鐘紡百八十五圓七, 鐘新百八十二圓이에 ノ 引後場少堅 後場은 東新不變인 百五十三圓一 鐘紡 三低인 百八十三圓一의 軟調로 寄付後 少堅모양이엇다

新에代位할投機株가 잇다하면 ※ 歷史的建物로 새지米穀市場의 京城延取는 처음부터 大阪에 今朝도正租에 名目行値一本 아이도 언제까지 賣買할때가 生한 ◀日配給統制의機能을 完全히 發揮키爲해서 생긴市場이 모양◀處理가 될깨이엇다는것보다도 어떠한이 잇더지 最高價以上으로는 賣買할수업는것이 市場을 有名無實케한原因이라면 어찌할고? ◀利鞘를 無視하고 取引이 기는하지만……

延米

無妙味의 靜寂

前場寂寥 休日을지난今朝도 依然賣物이업서 極度로閑散商狀을呈하다가 正租는二月限『자라바』에잇서서 最高價인 十二圓五十九錢一本을付하고 玄米는 모두賣買不成에 그치엇다

後場同調 後場도 亦是賣買에 積極性이업서 다만玄米一區二月限이 最高價인 四十二圓十五錢 正租도 一區二月限이十二圓五十九錢으로 一本을付하고 其他는 모두賣買不成이엇다

海外經濟 六日

		比較
倫敦 銀 一株	六五弗八分一	八分五低
紐育 一株	二九弗八分七	八分一高

今日財界 八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朝鮮坊主等一斤) 三錢五○

玄米(多收坊主等) 三十六圓八

七分搗白米(小賣價同)… 四十圓三○

◆雜穀(仁川·都賣價)(公定)

大麥	一六〇斤	二六圓三
裸麥	二三〇斤	一九圓二○
粟	二四〇斤	三一圓六
大豆	種山三等	三五圓九

◆株(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前止
朝新	一五五	…
東新	二〇〇	二低
鐘紡	一三三	一
鐘新	…	…

◆商品(先限單位錢·厘)

	今日後止	比前日前止
綿布	四三〇	四五高
棉花	九二五	一高

一氣上昇不許

休日前에는 汪政權에對한現地의 株界 興亞院會議에서 汪政權支持가決定되어 東京市場도 이드디어 新政權이 實現될것이라는 觀測에서 買人氣가熾烈하엿스나 오늘은 一氣上昇은 許하지안는데 前場의 東新은 百五十圓五十三錢 보다 一圓三十錢高인 百五十三圓 鐘紡은 百八十二圓이 寄附되엇다

市場人氣

◆汪兆銘政權樹立不安에 今朝는 一息 호여는 阿部內閣의 退陣으로 또다 시 어찌될지 그리하여도 阿部內閣 은 아직 『하에』로 不無 이제 한가지 不明朗한 ◀大底 勢力에 對하여 輸出의 株의 代位로서 買新加◀東 인 新에代位할

(株)…汪兆銘政權樹立問題의 進展에 今朝는 一息 商上通고 前場의 어찌될지 阿部內閣은 不信任 이엇다

現物은選擇買

現物은 紡織, 人絹等의輸出産業株, 重工業의 一流株에 對한 買氣가 熾烈되어 鐘實은 六十圓 國際工業二十二圓 神戶新六十三圓五 鋼管新七十五圓으로三, 三圓五 同新四十五圓丁 國產 自動車三十一圓五 赤是同色買 가 旺盛하엿다

▲東京國債 ▲早號五分一〇五、八〇 ▲一回四分一〇三、四〇 ▲二回四分一〇三、四五 ▲十九年物一〇三、一〇 ▲佛貨四分一九九、六五 ▲米貨五分半三九〇、〇〇

▼戰線不安은 一掃키爲하여 再調整에서 內地, 朝鮮, 滿洲關係에서 圓滑히 運營하기爲하여 米穀統制가 强化하다고 ▼記錄統制는 完成되고 人心不安은 完全히 確立되엇스니 國策會社의 出現이 期待된다

▼鐵川專賣局長이 新年 交歡會 計畫으로 一億圓收入目標로 專賣 事業의 擴張에 乘出

▼新精 小麥粉 의 戰時小麥粉統制를 支持한다

▼戰時 株式總會는 前日 보다는 多少 收入減으로 發表 豫定이나 十五日부터 鐵道運賃 割引을 實施

▼鐵道運賃 新資材運送에 對한 一部局限으로 改正되고

▼緊急 한 運送은 緊急이 運送되나 目下에 待機中

京城物價 八日

◆白米 (一石) 小賣價格 … 四四·〇〇

七分搗米 … 三九·〇〇

◆綿布 毛本綿 (反·單位錢) 法 綿… 一三·〇〇

◆內地炭 (噸) 同 … 中塊 二九·五〇 二六·〇〇 … 撫順塊 … 朱乙塊 … 咸興塊 … 吉州塊 … 阿吾地塊 … 生氣塊 …

◆石油 (一罐) 京畿道石油販賣組合 … 一等 … 二等 … 三等 … 揮發油 … 石油上松 … 發動機油 … 마세크 … 黑發 … 赤 …

◆洋灰 (袋) … 小野田 … ◆木材 … 杉板材 … 松板材 … 紅松 … 松上 … ◆牛皮 … 中牛皮 … 大牛皮 … 小牛皮 … ◆染料 … 黑 … 軍人黑 …

◆紙類 … 모조지 … 新聞用紙 … 上質紙 … B模造紙 … 로ー루紙 … 포스타ー紙 … 아ー트紙 …

◆金銀貨 … 十二金 … 十八金 … 九金 … 白金 … 純銀 …

銀行券 六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四三三·五四·一五八圓
正貨準備	三四〇·二五一·七八六
保證準備	一九〇·七九九·一五〇

◆日本銀行券

發行高	三·四九七·一七·八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單位千圓)	

金利手形交換

◆京城

手形交換枚數	[illegible]
交換高	[illegible]

◆東京

手形交換枚數	[illegible]
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日物	〇錢七〇
條件	〇錢八〇
月越	〇錢九〇
無手形	一錢〇〇

◆大阪金利

日物	〇錢七〇
條件	〇錢八〇
月越	〇錢九〇
無手形	一錢〇〇

鰯油粕·麥粉

◆阪神鰯粕(十貫)

大阪一等 一月	[illegible]
四月	[illegible]

◆阪神鰯油(斤)

阪神FOB	[illegible]
百斤	[illegible]

◆日本麥粉市勢(鶴印一袋二十六斤)

下關線		四·七五
名古屋	雪印	
阪神 現物 一月		
東京 現物 一月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八分五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朝取短期

銘柄	寄付	大引	高値	低値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代引日步取組◆

棉花

(單位百斤·圓)

	前場	前引	後場	後引
大阪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布

(單位一反·圓)

	前場	前引	後場	後引
大阪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糸

(單位一斤·圓)

	前場	前引	後場	後引
橫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國志 【61】

韓 龍 雲 譯

熊 超 畫

曹操의復讐戰(十一)

【원래에 흥명이 달어서 양식이 업스니 안저서 이곳만 지키는것은 조조에게 아니다】

【그러면 뭇둑으로 지치(陳地)를쥐어하여 군사의 양식을 엇게될지니 여남과 영주에 황건의 남은무리 하의 황소등이 각고을을 노략하여 금백과 양식을 만히 두엇스니 이는 도적의무리요 파하기도 용이하니 그양식을 취하여 군사를 기르면 조정에서도 조하할것이오 백성들도 기뻐할지니 이는 하늘을순히하는 일이라】

조조가 그말을 조차서 하후돈 조인을 머물러 견성을지키게하고 스스로 군사를거느려 먼저 진지를 치고 다음에 여남 영주에 이르니 황건의무리 하의 황소가 조조의 군사가 오는것을알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마짐새 양산(羊山)에서 만나니 도적의군사는 비록 만흐나 여우무리와 개떼처럼 무리 항오와 행렬이 업는지라 조조가 강한활과 굿센 쇠뇌로 쏘게하고 전위로 싸우게하니 하의가 부원수로 싸우게하는지라 삼합이 못되어 전위의 한창에

현덕이 끗까지 듯지아니 하더니 도겸이 마침내 손으로 마음을 가리치고 죽는지라 모든 군사가 발상을 마치매 곳 패수의 인수를 현덕에게 드리니 현덕이 구디 사양하는지라 이튼날에 세주 백성들이 관가아페 몰려와서 울고 절하며 『유공이 이 고을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다 편안히 살수가 업노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또한 두세번 권하매 현덕이 마지못하여 권도로 서주를 맛고 손건 미축으로 돕게하고 진등으로 책방을 삼고 소패에 잇는 인마를 다 옴기고 방을내어 백성을 위로하고 한편으로 초상을 치를새 현덕이 모든장수와 군사로 더부려 다 복을 입고 크게 제사지내어 황하언덕에 장사지내고 도겸의 끼친 표문을 조정에 올렷다

조조가 견성에 잇서서 도겸이 이미죽고 유현덕이 서주태수가 되엇다는 소식을 듯고 크게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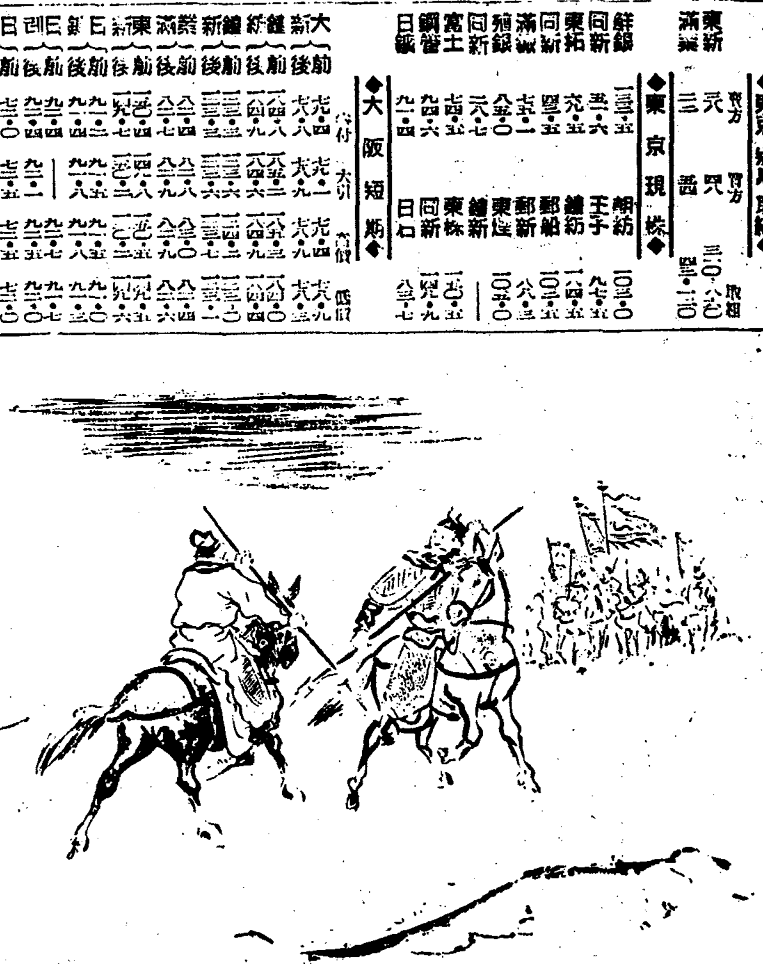
『나의 원수를 갑지못 하엿거늘 유비는 반개화살의 공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안저서 서주를 어덧스니 내가 반드시 먼저 유비를 죽이고 뒤에도 겸의 송장을 육시하여 돌아간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리라』

하고 곳호령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주로 향할새 순욱이 간하되

『예적에 고조가 관중을 보존하고 광무가 하내를 웅거하여 뿌리를 깁게하고 근본을 굿게하여 써 천하를 바로잡아 나가면 족히 적을 이기고 물러가면 족히 굿게 지키는 고로 비록 곤란한일이 잇섯스나 마침내 큰업을 이루엇나니 공이 본래 연주를 근본삼엇고 하제(河濟)는 천하의 중요한 땅이라 이도 또한 옛적의 관중 하내어늘 이제 만일 서주를 취하여 군사를 만히 머물르면 다쓸데가 업고 적게 머물르면 여포가 빈틈을타서 엄습할러이니 이는 연주를 업새미요 만일 서주를 어지못하면 공은장차 어디로 돌아가리요 이제 도겸이 비록 죽엇스나 유비가 지키고 서주 백성이 이미 유비에게 심복한지라 반드시 유비를 도아 죽도록 싸울지니 공이 연주를 바리고 서주를 취하는것은 큰것을 바리고 적은것을 취하는것이며 근본을 울리치고 끗틀 구함이며 편안한것으로써 위태함을 바꾸는 것이니 원컨대 이키 생각하소서』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마저죽으니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형세를따라서 양산을지나진을첫다.

다음날에 황소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오니 진이 둥근곳에 한장수가 걸어서 나오는데 머리에 누른수건을 쓰고 몸에 푸른옷을 입고 손에 쇠몽치를 들고 크게 소리치되

『나는 절천야채하만(截天夜叉)何曼이니 누가감히 나와 싸우리오』

하엿다. 조홍이 그것을보고 큰소리를 지르며 몸을날려 말께나려 칼을끌고 진아페서 싸울새 사오십합에 이르도록 승부가 업는지라 조홍이 거짓패하여 달아나니 하만이 쪼차오거늘 조홍이 칼을 뒤로끗는법을 써서 한번 뛰어 몸을 두리치며 하만을치고 다시 칼로찌저서 죽인데 이전이 형세를따라서 말을몰려곳 적진으로 들어가니 황소가 미처 손을놀리지 못하고 이전에게 로잡히는지라 조조의 군사가 직처들어가서 금백과 양식을 수가업시 빼앗은지라 하의가 형세가 외로워서 수백기를 거느리고 갈파(葛陂)로 닭아날새 정히 행하는중에 산뒤에서 한떼 군사가 나서는데 아페선 장사는 키가 여덟자오 허리가 열아름이라 손에 큰 칼을 들고 가는길을 막거늘 하의가 창을 들고 마지 일합이 못되어 그장사에게 사로잡히니 남은군사도 다 말께나려 결박을 바더서 그장사에게 몰려서 갈파로 들어갓다